

수도권기상청, 여름철 대비

방재 관계기관 기상재해 대응능력 지원

- 방재업무 담당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
수도권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6월 8일(목) 서울·인천·경기도 지자체와 교육·물관리 기관 등 방재업무 담당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「모두의 날씨」를 운영한다.

최근 들어 폭염, 집중호우, 가뭄, 태풍 등 여름철 극한의 위험기상이 점차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가운데 방재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과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마련되었다.

이번 과정은 방재대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청의 ‘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’ 과 ‘기상레이더·위성영상 이해와 활용’ 등 교육과 실습 사례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.

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은 “위험기상 감시와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방재 관련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올 여름철도 2,600만 수도권 시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한편, 기상청은 6월 15일부터 서울·인천·경기도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 지난해 8월 8~9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로 인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긴급재난문자로 전파한다.

담당 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윤기한 (031-8025-5010)
		담당자	사무관	최정희 (031-8025-5011)



[그림1] 2023년 위험기상 대응 실무과정 「모두의 날씨」